

오늘 DJ센터서 공직박람회...52개 기관 참여

광주시·인사혁신처 공동 모의 면접·선배 1:1 상담 재능 나눔 이벤트 등 행사도

공직 채용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공직 지망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인사혁신처와 공동 주관으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19 공직박람회'를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 공직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52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당신의 열정! 대한민국을 꽃 피웁시다'를 주제로 공직 지망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단순 관람형 전시보다 멘토링, 면접, 모의시험 등 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한다. 개막식 이후 메인무대에서는 직종별·직급별 채용설명회와 2019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의 릴레이 강연, 밀레니얼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행정공무원, 공개채용,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민간경력채용, 군인, 경찰, 해양경찰, 소방직 등 다양한 직종, 직급별 채용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예비공무원 추천 도서로 꼽히는 '공무원의 정석' 저자 임영미 작가가 강연도 한다.

멘토링관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상과 시험준비 요령 등을 들을 수 있는 공직선배와의 1:1 상담이 진행된다. 모의면접관에서는 실제 공무원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공채 수준의 개별면접과 발표면접을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11월 26일 서울 행사 때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모의시험관에서는 9급 필기 모의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를 통해 필기시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공직박람회에 참가한 52개 기관별로도 부스를 만들고 업무 및 채용 정보 소개는 물론 상담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이 지닌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업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직업 심리검사', 공무원 미술대전 초대작가들이 직접 좌우명 또는 나의 다짐 등을 써주는 '재능 나눔 이벤트' 등 일반 관람객들도 참여 가능한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마련돼 있다.

공직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19 공직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위해 행사 관련 자료와 및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공직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시험·면접과 단체관람을 위한 사전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접수가 마감된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주거환경 개선 봉사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9일 금호시영3단지 아파트를 찾아 연말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시공사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세대 벽지, 장판, 등기구 교체를 하고 단지 청소를 도왔다.

'광주 사회적경제 배리어프리 영화제' 개최

12~14일, 광주과기원서

광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통관 다목적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개최한다.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장벽이 없는 세상을 뜻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영화'를 결합해 신체적 핸디캡과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개막작인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시작으로 엄파의 공책, 일 포스티노, 천국의 속삭임, 죽구왕, 마당을 나온 암탉, 미라클 벨리에(페막작) 등 총 7편이 상영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을 넣어 상영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안대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는 장애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서구 18~19일 '예비 학부모 교육' 수강생 모집

광주시 서구가 '학부모 대학 강좌, 2020 초등 및 중등 예비학부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8일과 19일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예비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홍성민 소통연구소 소장이 '자존감과 주도력을 높이는 부모-자녀 관계와 소통', '엄마주도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자녀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소통방법, 부모와 자녀 관계지수 진단법,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부모 지도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학부모에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마련해 교육하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9일 DJ센터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성과 공유회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9일 '2019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행사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 한 해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광주지역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과 진흥원 주관 각종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참여해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식전 행사로 팔찌 만들기, 3D 펜 체험, 꽃차 시음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시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별빛소리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준비됐다.

사업에 참여한 5개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동시에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한 기관별, 학습자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도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9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성과공유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리는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에서 시민들이 직접 먹거나 기부할 김치를 담고 있다. 김장대전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광주 김치타운에 오면 김장이 쉽다

김장대전 첫 주 3000여명 방문
국산재료 예약물량 124t
김치담기 비법 전수 대만족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김치 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한번도 김치를 담아보지 않은 참가자들도 쉽게 김장을 담을 수 있다.

직접 담은 김장을 맛 볼 수 있도록 먹거리 부스에서는 국수, 두부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장대전에 사용되는 재료는 광산구 농민들이 키운 배추와 신안 전일염, 함평 고추가루, 여수 멸치액젓 등을 공동구매해 시중보다 저렴하고도 품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김장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 김치업체를 선정했다.

매일 납품되는 김장재료는 김장 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대통령상 수상자의 검수를 통과한 재료만 공급하고 있다.

김장대전은 지역 농산물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 주말인 7~8일에는 장흥군 유치면 주관으로 '표고버섯 요리전시·시식 행사'가 열렸다. 10일에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광주시연합회(회장 노흥기)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밀, 가지, 호박 등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나눠 주는 행사가 진행됐다.

김장대전은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참가 접수는 광주세계김치축제 홈페이지(kimchi.gwangju.go.kr) 또는 김장대전 사무국(문의전화 062-676-3601-2)으로 하면 된다. 행사장에서 직접 담그기 어려운 경우 택배 신청도 받는다. 직접 담갈 경우 10kg당 5만 6000원, 완제품 택배 주문은 10kg당 6만원이다.

/김형호 기자 khh@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